“합치면 필승…누가 되든지 당선 위해 함께 최선”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 배경과 전망

전략공천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 뿐 공감

탈락후보 지지표 흡수할 수 있는 ‘화학적 결합’ 과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애초 단일화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합의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지만, 두 후보가 지난 13일밤 긴급 회동을 통해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단일화가 급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두 후보는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밀실야합 전략공천을 깨뜨리고, 광주의 정체성과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애초 두 후보는 그동안 후보 단일화에 뜻을 같이 해왔었지만, 단일화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었다.

이 후보는 공식 후보등록 마감일인 16일 이전까지는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 후보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최대한 시기를 늦춰 오는 20~28일 사이가 최적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두 후보가 이견을 보여왔던 단일화 시기는 이번 합의를 통해 ‘데드라인’을 28일로 잡았다.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되면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단일화 시기면에서는 강 후보 측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 측이 ‘단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데다, 아무런 조건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대한 후보들의 강한 반발심도 깔려있지만,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장현-강운태-이용섭 3강 구도와 윤장현-무소속 단일후보 양강 구도를 둘러싸고 선거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맞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강운태-이용섭 지지층 성향이 확연히 달라 두 사람 간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단일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후보측 지지자 상당수가 윤장현 후보 지지로 돌아설 것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낙하산 공천을 비판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소속 단일후보가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이 두 사람이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광주시장 선거는 윤장현-무소속 단일후보 양강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두 사람은 오는 15일 후보등록을 한 뒤 무소속 단일화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결정을 놓고 양 측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도 있을 것으로 보여 단일화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을 택할 경우 질문 내용 등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기관 선정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단일화됐을 경우 양측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숙제 등 넘어야 할 고비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않다.

이와 관련, 강 후보와 이 후보는 “누구로 단일화 되든지 간에 양 선거캠프를 통합하는 등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 6·4 지방선거에서 두 사람 모두 패한다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 모두 끝까지 최적의 단일화 조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천장 받은 후보들 필승 결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공천장 수여식이 14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이 공천장을 들고 6·4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정치연합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낙연(62) 의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이 후보를 비롯해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심의를 벌여 경선 결과대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부터 중앙당 선관위와 ‘지방선거 검경수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열고 이 후보와 관련된 당비대납 의혹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와 관련, 당내 일부에서는 당비대납 파문이 확산할 경우 전체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후보 교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이어 전남지사 후보 선정이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경선에서 당비대납 의혹에 대한 도민의 선택이 반영됐다고 보고 이 의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이낙연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며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먹과 함께 가꾸어 온 일생…유불선 추구한 ‘구도자’

김은영의 ‘그림 생각’

(71) 아산 조방원

“한 세월 반짝일세. 내게 더 이상 뭐가 있겠는가. 천상 그림이제. 이제 무엇을 좀 알 만 한게 가야할 날이 금방이네…”

지난해 늦가을, 방문객들을 배웅하러 현관까지 나선 아산 조방원(1926~2014)화백. 그날, 이 시대 마지막 남종화의 대가 아산의 모습은 나의 기억 속에 한 그루 고목으로 남아있다. 날이 갈수록 지병으로 야위어갔지만 아산은 노송의 거북 등결 같은 몸피처럼 불필요한 윤기를 빼버린 단단하고 정정한 기운을 전해주었다. 가야할 곳은 오직 한군데라 했던 아산의 영방(靈房)과 정원 가득한 홍매, 청매, 버들매를 뒤로 하고 돌아서면서 이듬해 봄날을 기약했었다.

부처님을 좋아하므로 불두화(佛頭花) 하얗게 꽃 핀 계절에 세상을 떠난 아산의 삶과 예술은 한 마디로 ‘일생묵노(一生墨奴)’로 집약하고 싶다. 일생 먹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다. 화가로서 일가를 이루면서도 바른 세상 되는 것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유별난 애정, 평생 수집한

조방원 작 ‘심곡’

문방사우, 간찰, 대지 등을 기증해 온 청빈함 모두 먹과 함께 가꾸어 온 일생이다.

작품 ‘심곡(深谷)’에는 아산의 생전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계곡을 흐르는 물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물(上善若水)’이라 했던 노자의 사상, 산과 바위의 지극히 깊은 먹의 세계는 불교의 선미, 매화의 향기를 찾아가는 구도자를 통해 도가의 사상을 본다. 작품 속 인물은 그렇게 유불선(儒佛仙)을 추구했던 아산일 것이다. 이제 막 자신의 작품 안으로 한발 한발 걸어갔을 지도 모르겠다.

“내가 산수를 그리는 이유는 좋아서 그리는 것이고, 좋은 산은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 속에 그 산 안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초빙

초빙분야 (6개학과 8명)

· 원예과학과 친환경토양학
· 간호학과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 기계공학과 고체및구조역학
·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설계
· 토목공학과 구조동역학
· 약학과 임상약학/약물치료학, 약품합성학

접수기간

2014. 5. 26(월) ~ 5. 29(목) 18:00 까지

문의사항

TEL. 061-450-2014~5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http://www.mokpo.ac.kr)